

나주 10선 여행하고 상품권 받고 '즐거움 두배'

금성관·영산포 등대·황포돛배·불회사 등 11월까지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 후기 남긴 관광객 대상 추첨...3곳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나주시가 대표 관광 명소 10곳을 내걸고 '나주관광 10선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나주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번 행사를 진행한 뒤 관광객 통계를 '관광 명소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나주관광 10선 스탬프 투어'는 오는 11월30일까지 이어진다. 대표 관광지 10곳을 탐방하고 모바일 앱에서 '도장'을 찍으면 경품을 받고, 후기를 남긴 관광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목사내아' 숙박권을 준다. 나주 관광 10선에는 금성관, 영산포 등대와 황포돛배, 빛가람 호수공원과 전망대, 느리지전망대,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분군, 금성산,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산림자원연구소, 불회사, 드들강 솔밭

유원지가 이름을 올렸다. 관광 10선 가운데 3곳 이상 찾아 도장을 찍으면 추첨을 통해 나주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하면 공간정보시스템(GPS)이 자동으로 방문을 인증한다. 앱에서 방문 후기를 쓰고 선물을 신청하면 응모자 가운데 매달 45명을 무작위 추첨해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을 준다. 3곳 이상 방문하면 1만원(20명), 5곳 이상은 2만원(20명), 10곳 모두를 방문하면 3만원(5명)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첨 결과는 신청 다음 달 초 나주시 관광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스탬프 투어' 후기를 올린 뒤 인증하면 매달 3명을 추첨해 나주 목사내아 숙박권 1매를 준다. 후기에 필수 글귀 '#나주여행' '#나주가볼만한 곳' 등도 올려야 한다. 목사내아(牧使內衙)는 고려와 조선 시대 나주목에 부임했던 300여 명 목사(목민관)의 관저였다. 하룻밤 묵었다 가면 옛 목사들의 기(氣)를 받아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전해져온다. 고즈넉한 전통 한옥의 목사내아 앞마당에는 1980년대 벽락을 맞고 도수백 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팽나무가 있어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기도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장 찍고 상품권을 받아주는 나주관광 10선 스탬프 투어에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스탬프 투어 운영 후 축적한 관광객 통계를 활용해 향후 관광 명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대표 관광 명소 10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목사내아' 숙박권과 나주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주는 '나주관광 10선 스탬프 투어'를 11월까지 진행한다. 10선에 포함된 나주 금성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장흥 '농어촌융복합 첨단단지' 민간 투자 유치 나섰다

삼산리·신동리 일대 244만7000㎡ 총 사업비 6284억원 70% 비중 8월12일까지 투자의향서 접수

장흥군은 오는 8월12일까지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 분야 투자의향서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는 관산을 삼산리·신동리 일대에 244만7000㎡ 규모로 2029년까지 조성한다. 이 사업은 농·수·축·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을 조성하고 체험단지를 구축해 삼산간척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단지 조성에는 62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장흥군은 사업비의 70% 비중을 민간 투자로 채울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투자의향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스마트팜(첨단농장) 단지, 유통단지, 체험단지 등을 갖춘다. 국비 공모사업으로는 수산단지와 입입단지 등이 추진된다. 민간 투자의향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간척농지를 장흥군으로 이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매입 협의 결과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까지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가 들어서는 관산을 삼산간척지 일대. <장흥군 제공>

투자의향서 접수 공고는 이달 14일 낸 뒤 오는 8월12일까지 진행한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장흥군청 농산유통과에 내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은 필수"라며 "이번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귀농사관학교' 정착 효과 특출

입교생 70% 31세대 강진 정착... 9개월간 영농기술 습득

강진 귀농·귀촌을 돕는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교생 10명 중 7명은 강진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교생 68명(51세대) 가운데 70.5%인 48명(31세대)은 강진에 정착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3명의 입교생 가운데 9명이 강진에 정착했다. 강진군은 초보 농업인을 위해 농산물 재배부터 판촉, 홍보, 판매까지 영농 교육을 지원하는 데 힘 쓰고 있다. 강진군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문을 열었다. 칠량면 송로리에 있는 한 폐교를 새로 단장해 시설을 마련했다. 체류형 귀농 지원시설이 생긴 건 전남에서는 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이곳은 기숙형 공동주택 12실과 강의실, 실습실, 공동 텃밭 등 거주 공간·교육지원 시설을 갖췄다. 참가자들은 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 머무르는 동

안 주 작목 배움 교실(단기), 기초 영농기술 교육, 일대일 맞춤 교육(중기), 현장 실습교육(장기)으로 이어지는 귀농 창업 디자인교육을 받게 된다. 사관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주택과 농지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강진군은 해마다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 입교생을 모집한 뒤 서면·면접 심사를 거친 뒤 2월 입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관학교 입교생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100시간 이상 농촌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배우게 된다. 체류형 교육을 선택하면 숙소 면적당(29.4-50.5㎡) 15만-25만원의 사용료를 낸다. 강진군이 나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하려면 사관학교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강진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라면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금(500만원), 귀농정착보조금(3000만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사업(3000만원) 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국가하천 정비해 재해예방·지역경제 '두토끼'

498억 규모 7개 정비사업 생태공원 조성·골프장 확장 등

함평군이 함평천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을 확장하는 등 국가하천 정비에 나선다. 함평군은 이상의 함평군수가 최근 영산간유역환경청을 찾아 '국가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지원을 요청한 함평천 사업은 총 498억원 규모 7개 통합하천 정비사업이다. '함평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고막원천 배수문 정비사업' 등이 핵심이다. 함평군은 함평천에 6만4000㎡ 규모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막원천 지류 하천에는 배수문 통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제방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함평천 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함평천 확장 저류지와 고수부지를 활용해 기존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72홀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의(왼쪽 두 번째) 함평군수가 최근 영산간유역환경청을 찾아 함평천 통합하천사업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이상의 함평군수는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홍수량으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 숙원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함평천

을 만들고, 더 나아가 풍요로운 함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경찰, 장애인 성폭력·학대 예방 활동

장애인 거주 시설 2곳 합동 점검...실종 예방 지문 등록 등

함평경찰청은 장애인 거주 시설 2곳을 합동 점검하며 장애인 성폭력·학대 예방 활동을 벌였다. 지난 13일 진행된 합동 점검에는 함평경찰 피해자보호팀과 관계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주, 관계자와 형식적인 대

면 면담보다는 심층적인 면담·점검을 하도록 노력했다. 점검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림 책자를 활용하며 일대일 면담을 이어갔다. 합동 점검반은 시설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실종을 예방하고자 지문 사전 등록을 했다. 시설주와 종사자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이후인 함평경찰서장은 "정기적인 장애인 거주 시설 방문·점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범죄피해 예방과 신고 활성화 분위기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안전한 함평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고소득 '지황' 재배 확대

혈액 순환 특효...벼보다 5배 소득 농가 재배 장려...올 8ha로 늘어

장성군이 신소득 작목 '지황' 재배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황은 혈액 순환을 고르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진보약 '경옥고'의 주 원료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황 등 약용작물의 판매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장성군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지황 재배를 농가에 꾸준히 장려해왔다. 또 지황 신품종 '토강'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배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장성지역에서만 8ha 이상 지황 재배를 시작하는 성과를 냈다. 논벼 대신 지황을 재배할 경우 4~5배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2023년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논벼 소득은 10a 당 65만원 선인 반면,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지황 소득은 10a 당 3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쌀 생산량 조절을 통한 쌀값 하락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장성에서 갓 수확한 지황.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소득 작목 다변화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여건에 대응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소득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 다중 이용시설 65곳 안전 점검

장성군은 다중 이용시설 65곳을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대한민국안전대진환 집중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22일 시작한 점검에는 시설·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활동하고 있다. 대형 건설현장과 이용자가 많은 교량과 교통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반은 점검 중 발견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한 결함 요인은 시설물 사용 중지, 안전조치 실행,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단계별로 조치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많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 대비한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도 하고 있다. 규모 5000㎡ 이상 인허가 공사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낙석피해 우려 시설 예찰 ▲측대, 옹벽 등 주요 구조물 시공 적정성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배수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장성역 지하차도에서는 담당 공직자와 장성소방서,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했다. 장성군은 지하차도와 보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 펌프, 비상발전기, 승강기 등이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정비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